제주유배시기 추사 김정희의 '치유적 글쓰기'와 치유 스토리텔링 콘텐츠 구상 방안

임춘택*

<차 례>

1. 서론
2. 제주유배시기 추사의 '치유적 글쓰기'
3. 치유 스토리텔링 콘텐츠 구상 방안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추사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부수적으로 언급하는 정도에 머물렀던 제주유배시기 그의 글에 대한 '치유적 글쓰기 therapeutic writing' 관점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이를 활용한 치유 스토리텔링 콘텐츠 구상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2장에서는 추사가 제주유배시기에 썼던 다수의 시와 편지 중에서 몇 편을 선별하여 이를 치유적 글쓰기 관점에서 조명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1절에서는 괴

*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로운 심적·외적 상태를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글쓰기 expressive writing', 2절에서는 수선화를 소재로 한 한시에서 수선화와 자신을 연결하는 '은유적 표현 metaphoric expressive'을 통한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적 심상으로의 문학적 형상화, 3절에서는 가족과의 안부와 정보 교환, 해배로 인한 충만한 기쁨의 감정 표현을 담은 '치유적 편지 therapeutic letter'로서의 글쓰기를 다룬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기반으로 2장의 각 절에 상응하는 치유 스토리텔링 콘텐츠(3.1 감정을 표현하는 치유적 글쓰기, 3.2 내적 심상을 다루는 치유 목적의 은유적 글쓰기, 3.3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치유적 글쓰기)를 구상하여 현재 조성되어 운영 중인 제주유배길 프로그램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추사 김정희, 제주, 유배, 치유적 글쓰기, 치유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주유배문화

1. 서론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소통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인간은 말, 글, 몸짓 등을 통해 타인을 비롯한 모든 만물과 소통한다.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도 하고 남을 이해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문자 기호 체계로 이루어지는 글쓰기 소통 방법은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특권적으로 누릴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소통 매개체에 해당한다. 인간은 글쓰기를 통해 그 전달자인 자신과 타인을 위한 문자 텍스트를 능숙하게 다루고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문명화된 사회에서 특정인에게 글쓰기를 제약한다면 당사자에게 이는 삶에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것이고 결국 그의 존재 의미까지도 상실하는

결말을 낳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조선시대는 정계와 학계 인사들에게 유배로 점철된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형(流刑)이 많았다. 유배형은 유배인에게 평소 행하던 소통 환경을 차단하는 형벌 요소를 포함한다. 정계의 고위 관료나 명망 높은 학자들이 갑작스레 닥쳐서 치러야 하는 유배는 소통의 단절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이들에게 커다란 고난임에 분명하다. 정계와 학계에서 활동하면서 능숙하고 깊이 있으며 전략적 언어구사에 탁월했을 이들이 고립된 유배지에서 마주한 답답함과 막막함이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유배인은 급작스럽게 대면하는 유배지에서 말을 통한 속 시원한 소통이 불가능하므로 자연스레 글쓰기를 통한 소통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으로 오히려 유배는 이들에게 유배 이전보다 더 글과 가까워지는 특수한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

추사체(秋史體)와 세한도(歲寒圖)로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진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지성이자 정치권력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추사는 그의 증조부 김한신(金漢藎)이 영조의 사위였고 조선 후기 북학파 박제가(朴齊家)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며 병조참판과 형조참판까지 지낸 고위 관료이자 학자였다.

그러나 그는 헌종(憲宗) 6년 윤상도(尹尙度) 옥사(獄事)에 연루되어 1840년 9월 4일 한양을 떠나 제주에 유배되었다가 이로부터 8년 3개월이 지난 1848년 12월 6일에 해배된다. 추사에게 대정현(大靜縣)에서의 위리안치(圍籬安置)는 표면적으로는 절망적인 형벌이었으나 공교롭게도 결과적으로 그에게 시(詩), 서(書), 화(畵)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학문 · 예술 경지를 완성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도 겸손하고 성숙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1)]

---

1) 양진건 지음, 『제주 유배길에서 秋史를 만나다』, 서울, 푸른역사, 2011.

유배 최고형인 절해고도(絶海孤島)에서의 위리안치라도 유배인에게 글 읽기와 쓰기를 금하지 않았던 것은 추사 본인은 물론이고 그를 아꼈던 당시 사람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불행 중 다행한 일임에 분명하다. 만약 학문과 식견이 높았던 추사에게 유형이 독서와 집필까지도 금지하는 벌이었다면 혹독한 고문과 곤장으로 만신창이가 돼 지냈을 제주 유배는 그에게 시간이 갈수록 극복하기 힘든 형벌이 되어 생을 달리 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를 일이다.[2] 그만큼 유배에서 문학, 편지, 서예, 그림과 같은 표현 행위를 통한 심정 표출과 소통은 추사와 같은 당대 최고의 석학에게는 절망적이고 고단했을 삶을 지탱하고 심신을 유지, 회복하는 필수 요소가 되었음이 자명하고 나아가 유배 이전보다 새롭게 발전한 사고 지평을 경험하고 학문적 완성을 이루는 과정이 되었다.[3]

추사의 제주 유배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크게, 문헌고찰을 통한

이호순, 「추사 김정희의 서·서·화 연구-제주도 유배시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현대미술연구소, 『논문집』 7권, 2004, pp. 120-137.

2) 추사는 글쓰기가 그의 육체를 지치게 한다고 하여 '여러 날이 지나서야 비로소 붓을 들어 글을 쓸 수 있었다.'는 말도 하였다. 그러나 제주유배시기 글쓰기가 추사에게 유배 생활을 하는데 치명적인 행위이거나 마지못해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글쓰기를 통해 추사는 성취감, 심적 안정감, 고통의 발산, 고통의 예술적 학문적 승화, 가족과 지인 간 소통의 기쁨이라는 치유과정을 얻고 누릴 수 있었다. 추사는 글쓰기로 인해 다소간의 육체적 피로를 느꼈지만 그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글쓰기 과정과 결과 모두에게 얻을 수 있었다.

3) 참조 "갇혀있으면서도 갇혀있지 않았던 사람이 추사였던 것이다. 유배는 현실적인 억압이다. 유배인들의 삶을 질식시킨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갇혀있는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탈출을 꿈꾼다. 그러기에 유배인들 가운데는 갇혀있으면서 갇혀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유배지 인근을 비교적 자유스럽게 다니기도 했지만 그들은 무엇보다 문학 창작을 통해 유배의 고초와 고독감을 잊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배문학이다. 타향에서 기약 없는 해배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생활 중에 느끼는 특유의 심리 상태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이 작품들을 통해 유배인들은 갇힌 세계 속에서 열린 꿈을 꾸며 끊임없이 유배지에서 탈출을 시도했던 것이다." 양진건 지음, 『앞의 책』, p. 243.

학문중심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응용, 실제중심연구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전자에는 추사가 제주 유배지에서 남긴 시, 서, 화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 그 의미 분석과 유배(지)와의 관련성 그리고 추사가 제주 교육에 끼친 영향 등이 있다.[4] 후자는 최근 들어 나타나는 연구 경향들로, 스토리텔링, 관광, 디자인, 차치유 등 다양한 영역과 주제에서 추사의 제주 유배에 대한 실용적 적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5]

---

4) ① 시, 서, 화를 중심을 한 그 의미 분석과 유배(지)와의 관련성: 양순필, 「제주유배문학 서설」, 제주대학교, 『논문집』 10, 1979. ; 김태수, 「秋史의 流配詩 硏究」, 근역한문학회, 『한문학논집』 10권, 1992. ; 정후수, 「秋史 金正喜의 濟州島 流配生活」, 『한성어문학』 한성어문학회, 15권, 1996. ; 조규백, 「秋史 金正喜의 濟州島 流配 漢詩文에 담긴 문학세계 탐색 -중국 문인 蘇東坡와 관련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제32권, 2003. ; 이호순, 「秋史 金正喜의 詩·書·畵 硏究 - 제주도 유배시기를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현대미술연구소, 『논문집』 7권, 2004. ; 김현권, 「추사 김정희의 묵란화」, 한국미술교육학회, 『한국미술사교육』 19호, 2005. ; 부영근, 「秋史 金正喜의 濟州 流配詩 考察」, 영주어문학회, 『영주어문』 11권, 2006. 등등
② 제주 교육에 미친 영향: 양순필, 양진건, 「秋史의 濟州 敎學活動 硏究」,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6권, 1987. ; 양진건, 「秋史 金正喜의 濟州流配 敎學思想 硏究」,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9권, 1992. ; 양진건, 「제주유배인의 독서활동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25권 1호, 2003. ; 양은숙, 「추사 김정희의 사제관계에 대한 제주교육사적 의미」, 제주대학교 교육행정 석사학위논문, 2012. 등등
③ 기타: 강주진, 「僻派家門 出生의 秋史 金正喜: 秋史의 濟州 流配動機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6권, 1987. ; 안외순, 「추사 김정희와 윤상도 옥사, 그리고 정치권력」,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동방학』 28집, 2013. 등등

5) 현명관, 장애란, 「제주유배문화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추사 김정희 전각의 조형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한국디자인포럼』 37권, 2012. ; 양진건, 「제주유배문화의 스토리텔링 콘텐츠적 성과: 추사 김정희를 중심으로」,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포럼』 44호, 2013. ; 유진경, 「조선후기 유배지에서의 차치유에 관한 연구 - 茶山과 秋史를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예문화와 다도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 김진철, 양진건, 「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연구 - 제주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사례를 중심으

이 가운데서도 김진철, 양진건의 「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연구 - 제주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사례를 중심으로」(2015) 논문은 다크투어리즘, 유배문화, 치유를 중심으로 그 실천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 비판적 검토와 수용이 가능한 선행연구에 해당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배문화를 '다크투어리즘 dark tourism' 관점을 적용하여 유배인의 자기 극복 스토리를 통한 그 긍정적 가치 도출을 비롯하여 삶의 회복을 위한 치유 과정으로써의 유배 가치를 인식하는 방법을 논하고 있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제주유배시기 추사 글쓰기의 본인 치유 기능에 관해서 부분적이고 부수적으로 언급하는 정도에 머물렀지만 본 연구는 추사가 유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의 글쓰기가 심신을 치유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치유 과정이었고 이를 현실에서 활용하기 위한 구상안을 마련하는 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6]

본 연구자는 추사 및 치유 관련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거나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과 내용으로 연구를 구성한다.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첫째, 2장에서 본 연구자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유배시기에 썼던 다수의 한시와 서한문 가운데에서 몇 편을 선별하여 이를 '치유적 글쓰기 therapeutic

---

로 -」, 인문콘텐츠학회, 『인문콘텐츠』 36호, 2015. 등등

6)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의 유배시를 치유 관점에서 해석한 연구로 안말숙의 「치유로서의 문곡 유배시 연구」(2014)가 있다. 이제까지의 유배 관련 연구에서는 그 해당 연구주제를 다루면서 부수적이고 부분적으로만 유배인이 쓴 글에서 그들의 비통한 심정을 헤아리거나 그 고통의 문학적 승화를 언급하는 정도였다면 이 연구는 유배문학을 치유를 중심주제로 다루었다는 점이 이전 연구와의 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문곡의 유배시를 치유 관점에서 연구자가 해석하는 차원의 내용과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럼으로 유배문학을 치유적 관점에서 다루는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이 있는 인문치료, 시치료, 은유치료, 스토리텔링치료, 글쓰기치료 등의 연구 분야에서 정립된 이론적 기반을 중심으로 한 텍스트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writing'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둘째로, 3장에서는 2장에서 이루어진 연구(2.1 심적 괴로움의 발산, 2.2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관점 변화, 2.3 타인과의 지속적인 소통)를 기반으로 2장의 각 절에 상응하는 치유 스토리텔링 콘텐츠(3.1 감정을 표현하는 치유적 글쓰기, 3.2 내적 심상을 다루는 치유 목적의 은유적 글쓰기, 3.3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치유적 글쓰기)를 구상하여 현재 조성되어 운영 중인 제주유배길 프로그램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현재와 미래 제주에서의 치유 여행 구상안 또한 제주유배문화체험 차원에서 제시한다.

2. 제주유배시기 추사의 '치유적 글쓰기'

누구에게나 글쓰기는 그 주변 환경, 사건, 사람 등과 같은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글의 소재와 주제는 물론이고 글을 쓰는 동기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간과되지 않는다. 제주 유배인 추사에게 글쓰기 또한 제주라는 환경, 유배라는 사건, 가족과 지인 그리고 제주 사람들이라는 요소들이 불가분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과정이었다. 정쟁의 결과로 인한 관직의 박탈, 모진 고문, 절도(絶島)로의 유형은 추사의 글쓰기를 그 이전과 다르게 하는 사건이 되었다. 자연스레 그의 글쓰기는 본인의 고통을 은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토로하여 아픔을 달래고 내적 성찰을 이루거나 인생과 세상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취하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인 심경을 표하거나 그리움을 전하는 내용이 되었고 나아가 해배로의 희망을 담는 것이었다.

한양 생활 55년 동안에 접하지 않았던 제주 풍물일지라도 사람은 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지라 이것들은 그의 심경을 빗대어 글을 쓰기 위한 대상이 되었다. 더욱이 추사에게 제주 풍물은 낯

설지만 아름다운 관심의 대상이었고 피바람 불었던 그 사건을 점점 등지게 하는 '치유적 환경 healing environment'이 되었다.[7] 이와 같이 낯선 시공간으로의 시선 돌리기와 이를 기반으로 한 글쓰기는 추사에게 과거의 아픈 상처와 기억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준 행위가 되었다.

이와 같이, 유배 그 자체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모든 권리가 박탈되고 가족과 이별하는 형벌이 되었지만 유배를 다른 관점으로 볼 때, 즉 유배 당시 시점에서 조명한다면 유배는 형벌이 아닌 회복과 희망으로 나아가는 시간이기도 했다. 추사가 겪었던 정쟁으로 인한 패배자로서의 과거라는 실재적 시간은 유배 시점의 물리적 시간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 태장(笞杖)을 맞아 만신창이가 된 추사에게 제주에서 차, 귤, 인삼, 인간관계, 학문과 예술은 그가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정쟁으로부터 벗어나고 조정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유배 상황에서 그가 마음의 고통을 붓과 종이에 떼어놓았던 그 수많은 행위와 결과물인 글과 그림은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승화하는 과정이었고 그의 예술적 학문적 완성을 이루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추사에게 제주유배시간은 형식적으로는 유형이라는 형벌의 시간이었으나 내용적으로는 회복과 발전의 시간이

---

7) "「路程의 반쯤은 모두 돌길이라서 사람과 말이 비록 발붙이기가 어려웠지만 이를 지나자 조금 평평해지더군. 그리고 또 밀림의 무성한 그늘 속을 지나는데 겨우 한 가닥 햇빛이 통할 뿐이나 모두 아름다운 나무들로서 겨울에도 푸르러 시들지 않고 있었으며 간혹 단풍든 수풀이 있어도 새빨간 빛이라서 또한 유기의 단풍잎과 달랐네. 매우 사랑스러워 구경할 만하였으나 엄한 길이 매우 바쁘니 무슨 흥취가 있겠으며 하물며 어떻게 흥취를 돋울 수가 있었겠는가.」 이것은 配所에 도착하여 맨 처음 둘째 아우에게 보낸 편지 속에 들어있는 구절이다. 자신은 흥취를 일으킬 수 없다고 하였지만 이미 흥취에 젖어서 그 아름다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우에게 바로 전한 것이었다." 최원수 지음, 「추사실기 - 그 파란의 생애와 예술」, 『한국의 미 17 - 추사 김정희』, 서울, 중앙일보사, 1985, pp. 209-210.

되었다. 추사는 그렇게 유배시기를 사용하였고 유배 시기는 그에게 소중한 보물을 거두는 시기가 되어 돌아왔다.[8]

2.1 심적 괴로움의 발산

만약에 마음에 화가 쌓이기만 하거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면 결국 건강하지 못한 부정적인 방식으로 화가 표출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것은 마치 체내에 노폐물이나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액순환 장애,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몸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것과 유사하다. 몸과 마음의 문제는 동일하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적절한 방법으로 풀지 않고 쌓아놓으면 분노가 쌓이고 그 쌓인 분노는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폭발하여 본인과 이웃에게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럼으로 마음의 문제를 발설하여 해소하는 것은 병든 몸과 마음을 회복하여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행위라 할 수 있다.[9] 이러한 맥락에서 심리적 외상을 입은 사람이 그 문제와 관련한 본인 마음의 감정을 담은 '표현적 글쓰기 expressive writing'를 행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물리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심리적 외상 psychological trauma'을 경험한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지 않고 비밀로 간직하여 그 이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 병에 걸릴 확률이, 타인에

---

8) 참조, 조규백, 「앞의 논문」, p. 193.

9) Anita Timpe 지음, 문은숙 옮김, 『분노는 나의 힘 Ich bin so wütend』, 서울, 북폴리오, 2008. ; Karina Davidson, Amy R. Schwartz, David Sheffield, Ronald s. McCord, Stephen J. Lepore, and William Gerin, Expressive Writing and Blood Pressure, in: Stephen J. Lepore, Joshua M. Smyth, *The Writing Cure - How Expressive Writing Promotes Health and Emotional Well-Being,* 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2, pp. 17-30.

게 문제를 털어놓는 사람에 비해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왜냐하면 심리적 외상을 입은 사람이 이에 관한 고통스러운 심정을 글에 담는 행위가 그 마음에 존재하는 문제를 마음의 자리로부터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몸 밖으로 꺼내놓았으니 당연히 몸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 문제의 자리를 얼마간 지속적으로 비게 하는 글쓰기 행위는 상처를 점점 치유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효과가 있다. 문제가 정리되고 마음이 안정되어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각과 의지가 들어서게 되면 삶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사람이 과거의 심각한 상처 경험과 그 아픔을 주제로 삼아 글을 쓰면서 이와 연관하는 다양한 경험, 사건들로 주제를 확장하여 글을 쓰는 것은 문제의 근원과 문제 간의 관련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과정에 해당한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글을 쓰는 당사자는 효과적이고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10]

추사의 경우 그가 쓴 글들의 내용을 논하기 이전에 글의 분량이 상당하였고 서체에 대한 집념 또한 대단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70년 동안에 걸쳐 10개의 벼루를 갈아 닳게 했고 천여 자루의 붓을 다 닳게 했다."[11]라는 그의 글에서 추사는 많은 글을 썼고 무수히 반복적으로 서예를 연습했음을 알 수 있다. 유배생활에서 추사의 학문적 탐구는 왕성하였고 그 결과물은 학문적 예술적 경지를 보여주는 것들이었다.

학계에서는 추사체를 비롯하여 그의 학문과 예술이 제주도 유배시간에 완성됐다고 보는 견해를 정설로 받아들인다. 임창순도 추

---

10) James W. Pennebaker 지음, 이봉희 옮김, 『글쓰기치료 *Writing to Heal*』, 서울, 학지사, 2007, pp. 23·42·46. ; Roger J. Booth, Keith J. Petrie, Emotional Expression and Health Changes: Can We Identify Biological Pathways?, in: Stephen J. Lepore, Joshua M. Smyth, *Ibid.*, pp. 157-175.

11) 김정희 지음, 임정기 옮김, 『(고전국역총서 243) 국역 완당전집 Ⅰ』,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5, p. 296. "七十年磨穿十硏禿盡千毫"

사가 새로운 스타일의 서체가 완성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제주 유배생활을 꼽았다. 그는 "울분과 불평을 토로하며 험준하면서도 일변 해학적인 면을 갖춘 추사의 서체는 험난했던 그의 생애 속에서 만들어진 것"[12]이라고 보았다.

몸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생긴 울분과 불평이 추사의 전인성(全人性)을 전제로 한 글쓰기를 통해 토로됨으로써 추사체라는 독특한 서체가 제주에서 마침내 창조될 수 있었던 것이다.[13] 이렇듯 제주, 유배, 글쓰기가 하나를 이루어 추사에게 쌓인 고통과 상처는 서한문에서 사실적 표현 방식으로 그리고 한시에서는 예술적 표현 방식을 통해 심미적으로 표출, 승화되었다. 비록 제주 유배가 추사에게 낯설고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들도 많았지만 추사는 이러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글쓰기를 통해 그 심신의 고단함을 달래고 심적 여유를 찾으면서 정쟁과 태형으로 인한 상처를 서서히 치유하였고 마침내 후대에 길이 남을 예술혼까지도 만들어냈다.

> "담계覃溪(옹방강翁方綱)는 이르기를 '옛 경전을 좋아한다.'하고, 운대芸臺(완원阮元)는 이르기를 '남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하였는데, 두 분의 말씀이 내 평생을 모두 다 나타냈다. 어찌하다 바다 밖의 삿갓 쓴 한 사람이 되어 홀연히 원우元祐 때의 죄인 같아졌나!"[14]
>
> -스스로 〈작은 초상화〉에 제함 제주에 있을 때[自題小照 在濟州時]

12) 임창순 지음, 「한국 서예사에 있어서 추사의 위치」, 『한국의 미 17 -추사 김정희』, 서울, 중앙일보사, 1985, p. 181.

13) "추사체가 새로운 조형적 감각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주도의 풍경도 분명 한몫 했을 것인데, 추사체를 가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치명적인 폭풍으로 뒤집혀진 제주 바다의 날선 파도들이 보이기도 하고, 더러는 그 거무튀튀한 제주 돌담을 방금 돌아 나가는 매운 칼바람들이 눈에 잡히기도 한다. 그 어떤 힘과 쓸쓸함이 공존하는 세계를 담고 있다."라고 말한다. 양진건 지음, 『앞의 책』, p. 164.

14) 김정희 지음, 최완수 옮김, 『추사집』, 2014, p. 407. "覃溪云 嗜古經. 芸臺云 不肯人云亦云. 兩公之言, 盡吾平生. 胡爲乎 海天一笠, 汐似元祐罪人."

추사는 본인의 처지를 옹방강(翁方綱)과 완원(阮元)의 말에 빗대어 한탄하고 있다. 그 일련의 정쟁 과정이 자신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어찌하다'에 녹아있다. 추사는 '누구를 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는데 어찌하다 나는 매를 맞고 유배되어 죄인이 되었는가?'라는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과 충격으로 인한 감정을 글로 표현하여 드러냈다. 이처럼 제주 유배인 추사는 종이 위에 죄인이 된 안타까움과 한스러움을 감정 그대로 글로써 드러내는 표현적 글쓰기를 행하였다.

> "내 꼴은 한 결 같이 전 모양 그대로이나 담과 해수가 크게 더 심하게 되어 그 기침이 급해서 기세를 돌이킬 수 없을 때는 피가 나오는 증세까지 겹쳐 일어나니, 독기 있고 습한 기후 풍토가 빌미 아닌 것이 없다네. 샘물이 좋지 않아서 배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하여 뚫리지 않고, 눈 어두운 것은 더하면 더했지 낫지를 않고 있네. 봄의 독한 기운이 또 일찍부터 일어나니 그 독기를 견딜 수 없는 것이 더욱 심해서 아마 나 자신을 지탱할 수 없을 것 같군."15)
>
> - 막내아우 상희에게[與舍季 相喜]

추사는 제주에서 아픈 몸으로 지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막내 동생 김상희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노년에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수 천리 바다 건너 절도에서 노인 남자가 홀로 사는 것은 당장 그리고 매순간 의식주부터 해결하기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다. 더구나 젊어서도 아니고 당시 55세에 고문과 36대의 곤장을 맞은 추사에게 제주 위리안치라는 열악한 환경은 육신의 고통을 더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추사는 위의 서한문에서 본인 육체의 아픔과 그로 인한 심적 고

---

15) 김정희 지음, 최완수 옮김, 『앞의 책』, pp. 565-567. "吾狀一如前邊樣, 而痰嗽大爲添劇. 其嗽急氣不旋之時, 血症幷發, 無非瘴濕爲祟. 水泉不佳, 積鬱痞滿不散, 眼花有加無減. 春瘴又早作, 不能耐瘴, 較益甚焉, 恐無以支吾矣."

통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기를 사랑하고 믿어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야를 보내는 가족에게 육체의 고통과 삶의 고단함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것인지 알려줌으로써 도움을 요청하고 동시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암묵적인 희망과 의지를 표하고 있다. 사람은 자기의 고통에 누군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경청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

추사는 위의 글에서 친구나 제자에게 알리기 구차한 고통스러운 심정을 막내 동생 김상희에게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고 disclosure' 있다. 추사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이로 인한 고통을 발설하는 글쓰기, 즉 가족들로부터 자신이 수용 · 공감되는 것을 기대하고 쓰는 글쓰기를 통해 마음과 육체 고통의 짐을 덜어내었다.[16]

2.2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관점 변화

조선왕조의 세도정치에서 정쟁은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항소가 난무하였고 능지처참과 같은 잔인한 숙청도 발생하였다. 추사도 이러한 정치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소와 항변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태형과 유형을 당했는데 그의 입장에서 가혹하고 억울한 처벌이었다.

안동김문과 한패였던 윤상도 그리고 이들과 상대편에 있던 추사는 그의 유배 10년 전에 있었던 윤상도의 상소로 인하여 이제는 둘이 한패로 몰려 함께 처벌받는 기막힌 사태에 처하게 된다. 추사의 선조(先朝)와 아버지 김노경(金魯敬)이 연루된 일련의 정쟁 과정은 추사가 대처할 수 없는 속수무책이었고 운명의 기이하고

16) Jeffrey Berman, "The Writing Cure: How Expressive Writing Promotes Health and Emotional Well-Being(book reviews)", *Psychoanalytic Psychology* 20(3), 2003, pp. 575-578.

무자비한 장난과 같았다.[17]

우리 파와 다른 목소리를 내어 정권 주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조정 혼란과 국가 반역이라는 죄목으로 상대방을 모함하여 죄를 뒤집어씌우고 관직을 박탈하며 그것도 모자라 때리고 심지어 사형에 처하고 유배를 보내는 것은 그 자체가 봉건적이고 폭력적이며 불의하다. 하지만 그 시대는 그러했다.

추사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윤상도 옥사를 비롯하여 봉건적이고 폭력적인 시대와 세상에 대한 재해석, 사건에 대한 시각 전환, 삶에 대한 관조적 태도 등이 필요했다.[18] 이는 어떤 사건에 대한 관점의 변화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 추사의 글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사의 몇몇 글을 치유적 관점에서 조명해볼 때 그가 정쟁의 과정과 결과를 '내 잘못,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에서 다른 시각으로 전환하는데 제주, 유배, 글쓰기가 유기적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사는 제주도의 수선화와 관련한 서한과 한시에서 자신과 수선화를 '은유적으로 metaphoric' 연관 지어 표현하는 대목에서 삶과 희망을 추구하는 심적 변화 과정을 보인다.

> "수선화(水仙花)는 과연 천하에 큰 구경거리입니다. 강절(江浙) 이남 지역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곳에는 촌리(村里)마다 한 치, 한 자쯤의 땅에도 이 수선화가 없는 곳이 없는데, 화품(花品)이 대단히 커서 한 송이가 많게는 십수화(十數花) 팔구악(八九萼) 오륙악(五六萼)에 이르되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꽃은 정월 그믐, 2월 초에 피어서 3월에 이르러서는 산과 들, 밭두둑 사이가 마치 흰 구름이 질펀하게 깔려 있는 듯, 또는 흰 눈이 광대하게 쌓여 있는 듯

17) 안외순, 「앞의 논문」, 2003.

18) 참조, 정후수, 「추사 김정희의 제주도 유배생활」, 한성어문학회, 『한성어문학』 15권, 1996, pp. 38-39.

> 합니다. 이 죄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문 동쪽 · 서쪽이 모두 그러하건만, 돌아보건대 굴속에 처박힌 초췌한 이 몸이야 어떻게 이것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눈을 감아버리면 그만이거니와, 눈을 뜨면 눈에 가득 들어오니, 어떻게 해야 눈을 차단하여 보이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토착민들은 이것이 귀한 줄을 몰라서 우마(牛馬)에게 먹이고 또 따라서 짓밟아 버리며, 또한 그것이 보리밭에 많이 난 때문에 촌리(村里)의 장정이나 아이들이 한결같이 호미로 파내어 버리는데, 호미로 파내도 다시 나곤 하기 때문에 또는 이것을 원수 보듯 하고 있으니, 물(物)이 제자리를 얻지 못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19]

추사는 수선화가 천하의 큰 구경거리라며 그 화품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 한량없는 수량에 감탄한다. 그는 수선화 몇 송이만으로도 아름다운데 특정 장소만이 아니라 눈만 뜨면 시야 가득 밀려들어오는 수선화의 아름다움을 감당하기 어려워한다. 화려하고 곱고 밝은 색의 수선화에 비하면 초췌하고 죄인 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비교되어서 아름다운 수선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다. 그리고 토착민이 농사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선화를 호미로 마구 없애버리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한다.

추사는 수선화와 자신을 동일 시 하면서 현재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수선화가 당하는 수난과 연관 지어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20] 추사는 이러한 현상을 '물이 제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말로 판단하였는데, 이것은 추사 본인과 수선화도 세상으로부터 멸시

---

19) "水仙花果 是天下大觀 江浙以南 未知如何 此中之里里村村 寸土尺地 無非此水仙花 花品絶大 一朶多至十數花 八九莖五六莖 無不皆然 其開在正晦二初 至於三月 山野田壟之際 漫漫如白雲 浩浩如白雪 累居之門東門西 無不皆然 顧玆坎窞憔悴 何可及此 若閉眼則已 開眼則便滿眼而來 何以遮眼截住耶 土人則不知貴焉 牛馬食齕 又從以踐踏之 又其多生於麥田之故 村丁里童一以鋤去 鋤而猶生之故 又仇視之 物之不得其所" 『阮堂先生全集』, 卷三, 與權彝齋, 五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DB. http://db.itk 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20) 조규백, 「앞의 논문」, pp. 202-205. ; 양진건 지음, 『앞의 책』, p. 186.

당하는 죄인 된 관점에서 벗어나 그에 걸맞은 자리를 다시 얻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추사는 유배 죄인이라는 짓밟힌 자리에서 벗어나 원래 있었던 자리로 회복되고 돌아가야 한다는 희망과 의지를 그와 막역한 친구 권돈인(權敦仁)에게 보내는 글에서 이처럼 내포적으로 드러내었다.

> "푸른 바다 파란 하늘 한 결 같이 웃는 얼굴
> 신선의 맑은 풍모 마침내 아끼지 않았어라.
> 호미 끝에 캐어 함부로 버려진 것을
> 밝은 창과 깨끗한 책상 사이에 고이 모시네."21)

추사는 시문학의 한 장르인 한시를 통해 문학적 예술성을 형상화하였다. 대다수의 시 장르가 서정성을 특징으로 삼아 사물과 현상에 대한 시인의 정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위의 시 또한 시인의 심적 이미지를 짙게 그려내고 있다. 우리는 추사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신처럼 호미 끝에 캐어 짓밟히는 수선화에 대하여 '은유적 변형 transforming metaphors'을 가하는 것을 위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호미 끝에 캐어 함부로 버려진 들판의 꽃이라면 어떤 경우에든 다시 소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추사는 수모를 당한 꽃이 맞이하게 될 현실적이고 그에 마땅한 결말을 시적 세계로 끌어들여 완전히 뒤바꾸는 시도를 하였다. 즉 추사는 시를 '비바람 치는 세월 속에서 끝내 잊히었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밝은 창과 깨끗한 책상 사이에 고이 모시네."를 선택하여 제주에서 유배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행위와 모습을 암시하면서 삶으로

---

21) "碧海靑天一解顔 仙緣到底未終慳 鋤頭棄擲尋常物 供養窓明几淨間" 『阮堂先生全集』, 卷十, 詩(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의 의지와 희망을 담은 은유를 생산한 것이다.

현실에 대한 인간 내면의 은유적 변형은 그에 따른 현실을 창조한다. 이 말의 원리는 한 인간 삶의 결과가 그 생각에 있다는 진리와도 무관하지 않다. 과거의 사실, 현재의 현실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한 인간의 심적 기저 이미지는 그것이 과거의 사건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변형이 가능하여 다시 실재가 되고 결코 확정적이지 않으며 또한 육체를 비롯한 물질세계와도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위의 서한과 한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추사는 사물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이에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의 현상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는 범인(凡人)들이 절망적 상황에서 흔히 수용하는 무저항적 현실수용과 비관적 자세를 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 추사는 유배 현실에서 처한 고난과 슬픔이라는 고정성과 정체성을 한시의 은유 세계를 통해 탈정체성을 이루어내었고, 해배로의 여러 노력들이 함께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자유를 맞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탁월한 은유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 향유하였고 이를 통해 지인들과 소통했던 시인 추사에게 자신의 문학적 상상력과 시적 글쓰기는 유배라는 어려운 시기에 생과 희망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길 안내자이자 외로운 시기를 함께 이겨낸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문학이 개인에 따라 그 일생에 파격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래서 마음의 은유 세계를 움직임으로써 한 개인의 삶과 주변 세계를 움직이는 결과에 이르게 한다. 삶의 고통을 치유하고 생으로의 길을 탐색하도록 은유를 작동시키는 것은 사실적 표현을 통한 권고, 다짐, 설명 방식보다도 효과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강력하다.[22]

2.3 타인과의 지속적인 소통

추사는 제주유배시기 동안 한문서간 27통, 한글서간 21통 도합 48통의 유배서간을 썼다.[23] 당시 원악지(遠惡地) 제주는 뱃길이 험난했고 거리도 수륙 2천리라 제주와 한양 등을 오가는 데 길게는 몇 달이 걸린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8년 3개월 유배생활 줄곧 서신왕래가 이루어진 셈이다.[24]

편지소통은 갇힌 자에게 그 자체만으로도 삶을 이어가는 이유이자 위로이고 자유로의 희망을 꿈꾸는 동력이 된다. 추사는 아래 편지에서 가족으로부터 새로운 소식을 전해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답신편지에서 밝히고 있다. 당대 권위 있는 학자로서의 추사도 편지에서만큼은 지극히 사적이고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그는 가족의 소식을 담은 동생과의 편지 왕래가 '사물에 대

---

22) 은유 치료, 은유적 이야기 치료, 스토리텔링 치료, 내러티브 치료 등으로 일컫는 서정적, 서사적 은유 상상력을 활용한 치료에 관한 연구와 치료 사례는 특히 호주, 미국, 독일 등을 중심으로 국외에서 상당한 논문과 저서가 출간되었고 국내에서도 10년 넘게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자가 이와 관련하여 참고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이민용, 「인문치료의 관점에서 본 은유의 치유적 기능과 활용」, 한국카프카학회, 『카프카연구』 23집, 2010. ; 임춘택, 「교육과 치료로서의 문학 행위에 관한 질적 연구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 모임 사례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73호, 2015. ; George W. Burns(edit.), *Healing with Stories -Your Casebook Collection for Using Therapeutic Metaphor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2007., Richard R. Kopp, *Metaphor Therapy -Using Client Generated Metaphors in Psychotherapy,* New York, Brunner Routledge, 1995. ; Stefan Hammel, *Handbuch des therapeutischen Erzählens -Geschichte und Metaphern in Psychotherapie*, Kinder- und Familientherapie, Heilkunde, Coaching und Supersivion, Stuttgart, Klett- Cotta, 2010, pp. 31-33.

23) 양순필, 김봉옥,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문학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32집, 1991, p. 75.

24) 김정희 지음, 최완수 옮김, 제5편 서한문 書翰文, in: 『앞의 책』, pp. 511-587.

하여 깊이 연구하여 지식을 넓히는 것(格物致知)'과 다르지 않다고 밝히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차서 넘친다하며 그 기쁨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였다.

> "설 뒤(연후年後)에 이곳에서 부친 편지는 과연 언제 받도록 도착하였던가. 북쪽에서 오는 배가 설의 전후를 물론하고 한 결 같이 오래 막혀 아침저녁으로 바라기만 하니, 이즈음에는 더욱 목마르게 애가 타더군. 2월 24일에 성聖이란 종(가노家奴)이 비로소 와서 둘째 아우와 자네의 두 편지를 받아 보았네. 한갓 설을 전후하여 처음 받는 편지일 뿐만 아니라 또 아직 보름도 안 지난 최근의 소식이라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 마치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하루아침에 크게 깨친 것(활연관통豁然貫通) 같았네."[25] (1846년 봄)

> "가을이 다시 몹시 가물고 늦더위가 오히려 교기驕氣를 떨쳐서 서늘한 느낌은 겨우 싹 트니 전형 옷깃을 여밀 만한 기운이 없는데 북쪽 육지의 요즈음은 다시 어떠한가. 이러한 때에 온 집안이 모두 한가지로 편안하게 잘 지내는가. 자네 회갑을 잘 치르고 늙지 않게 하는 잔치를 잘 받게나. 막내아우가 조심할 것은 건강인데 아마 자네의 회갑에는 나와 모일 듯하니 멀리서 마음 씀이 또한 다른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네. 늙은 누님과 서모도 모두 안강하시며 서울과 시골의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은 역시 모두 잘되어 가는가. 그지없이 마음 쓰이네."[26] (1848년 9월 4일)

제주유배시기 서한과 그 관련 연구를 보면 추사가 아내(부안이씨 禮安李氏)와 자식(상무 商懋)은 물론이고 두 아우 명희(命喜), 상희(相喜) 형제와 종형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유별하였고 일가붙

---

25) 김정희 지음, 최완수 옮김, 『앞의 책』, p. 563. "年後 自此所付之書, 果於何時收到. 北船無論年前後, 一以久阻, 日夕望望, 際此尤懸渴. 至於二月卄四, 聖奴始來, 獲見仲季兩槭. 非徒前後初信, 又不過未一望近信, 欣瀉如格致之 一朝豁然貫通."

26) 김정희 지음, 최완수 옮김, 『앞의 책』, p. 533.

이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27] 추사는 집안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들에서 이들을 세심하게 위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담았고 유배생활로 인한 답답한 심정과 생활의 불편함을 토로 하였으며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묻고 기원하는 내용들을 주로 썼다.

이렇게 추사의 속마음을 보이고 가족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남다른 관심을 표현하는 편지소통이 만약에 제주유배시기에 추사에게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추사와 관련한 모든 일련의 결과가 그 당시와 그 이후로 현재까지 어떤 형국으로 주조되었을까? 위의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편의 편지에 뛸 듯이 기뻐하는 추사에게 편지소통이 부재하여 그의 제주유배시기에 서간의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았다면 유배생활은 어떠했을까? 아마도 그의 유배생활과 이 시기에 이루어진 글과 그림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그것과 많이 다를 것이다. 그만큼 유배인 추사에게 가족 간의 편지 소통은 삶을 이어가도록 돕는 행위이자 제주에서도 학문과 예술 활동을 수행하도록 돕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큰 힘이었음이 자명하다.

우리가 공기의 절대 필요성과 그 고마움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다가 고지대 저산소 환경이나 바닷물 속에서 그 절대적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처럼 갇힌 자 유배인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서로 주고받는 원활한 소통은 그 자체가 생이자 정신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요인이 된다.

치유란 정상적인 원래의 자리와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한 그 이상의 발전을 의미한다. 편지소통은 유배인에게 유배 이전 원래의 소통환경으로부터의 '수용 acceptance'을 통한 그곳으로의 '재귀인 reattribution'을 지향하는 것이고 해배라는 이상을 꿈꾸게 하고 이를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적 참여 active engagement'를 촉발시킨

27) 양순필, 김봉옥, 「앞의 논문」, pp. 77-96.

다는 점에서 그 소통행위 자체가 치유적 행위라 말할 수 있다.[28]

> "기쁜 소식이 온 것은 지난 섣달 19일에 있었으니 정계停啓(사헌부나 사간원에서 처벌한 죄인의 죄명과 성명을 적어서 임금께 상주하는 서류인 전계傳啓에서 처벌이 끝난 죄인의 이름을 삭제해 올리는 서류) 뒤였네(정계는 12월 13일에 있었음). 특별히 보낸 심부름꾼이 섣달 그믐날 내려와서 계속 둘째 아우와 자네의 여러 편지들을 받아 보았으나 아직 영향을 미칠 만한 한 글자도 없었으므로, 이 마음은 초조하여 미칠 것만 같아서 갈수록 더욱 몸 둘 바를 몰랐었네.
>
> 어느덧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 벌써 곡일穀日(음력 정월 초8일의 이명異名)이 되었는데, 온 집안이 새해를 맞이해서는 많은 복과 크게 좋은 일들이 꼭 찾아와야 하겠지. 빌고 또 비네. 서울과 시골의 크고 작은 위아래 여러분들은 모두 안녕하시며, 연로하신 누님과 서모의 연세는 또 보태어 늘어나셨는데, 모두 한 결 같이 기운이 좋으신가. 먼먼 바다 밖에서 걱정만 치밀 뿐일세."[29] (1849년 2월 25일경)

B. C. 1100년경부터 고대 그리스를 시작으로 '일리아드 Iliad', '헬레니즘 이집트 hellenistic egypt' 시대, 로마 시대 '키케로 Cicero'의 글, '신약 성경 *New Testament* 다수의 사도 글' 등등 세계 인류 역사적으로 주요한 서신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편지의 기원은 매우 오래되었고 편지는 문학의 모든 형태들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형태에 속한다.[30] 세계적인 시문학 작가인 '에밀리 디킨슨

---

28) Honoré M. France, Jan Cadieax, Edward G. Allen, "Letter Therapy: A Model for Enhancing Counseling Interven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3), 1995, p. 317.

29) 김정희 지음, 최완수 옮김, 『앞의 책』, pp. 583-584. "喜報之來, 在於去臘十九, 停啓後. 專伻在於除日, 連見仲季諸書, 姑無一字之及於影響, 此心之焦燥欲發狂, 玄盖靡措. 倏此開歲, 已至穀日, 渾履膺此新祺, 百福大吉, 詹祝詹祝. 京鄉大小上下, 俱得享利, 老姊氏老庶母屋籌, 又此添長, 一以康旺. 遠外念溯."

30) Nancy J. Moules, "The Past and Future of Therapeutic Letters -Family Suffering and Healing Words", *Journal of Family Nursing* 15(1), 2009, p. 103.

Emily Dickinson'도 "편지는 항상 나에게 불멸성과 같다."는 말로 그 가치와 의미를 평가하였다.[31] 편지는 무궁한 생명력과 불멸성이라는 속성을 지녔고 인류에 매우 유용하고 가치 있는 소통수단이 되어왔다.

이와 같이 개인 차원을 넘어 인류문화에 미치는 편지의 영향과 그 중요성으로 인해 편지는 인간을 치유하는 목적으로도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왔다. '편지 치료 Letter Therapy', '치유적 편지 Therapeutic Letters'는 편지가 지닌 긍정적 측면을 활용한 치유 수단의 한 방법이다. 현재까지 이에 관한 논문과 저서가 수 백 편에 이르고 있다. 이들 연구 결과를 통해서 '문자 소통 written communication'으로 이루어지는 편지 왕래가 치유 상황에서 활용될 때 그 긍정적 속성으로 인한 효과가 개인과 집단에 얼마나 이로운지 증명되고 있다.

제주유배시기에 추사가 쓴 편지와 편지 소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그의 학문적 예술적 업적들이 후대인들이 간직하고 아끼는 문화유산이 되어 불멸성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다. 편지 소통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수단이 된 셈이다. 유배를 당한 유배인과 그와 과거에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 간의 장거리 편지 왕래는 내용적으로 보나 암묵적이지만 실질적인 의도로 보나 '치유적 편지'에 해당한다.

그래서 제주 유배인 추사에게 편지 왕래는 생명 유지와 회복을 위한 마음과 육체의 '숨쉬기 breathing'와 같았다. 숨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를 가능하고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편지는 유배인 추사와 가족 간의 '연결 매체 joining medium' 역할을 하였다. 편지를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모두 자신이 서로에게 단절되고 갇힌 느낌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연결되어

31) 재인용, Nathan R. Pyle, "Therapeutic Letters as Relationally Responsive", *Journal of Family Nursing* 15(1), 2009, p. 78. "A letter always seemed to me like immortality."

있다는 위안과 안정감을 편지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두 동생, 자식, 부인 그리고 지인들과의 '관계적 반응 방식 relationally responsive ways'으로 주고받는 편지소통은 유배로 인한 공간적 차단성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탈고정성 defixation'으로 나아가는 수단이 되었다. 편지 왕래는 추사에게 희망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공간을 심리적 차원에서 열어주었고 그 과정은 다름 아닌 그 자체가 치유적 대화였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한 역동적이고 생성적인 원동력이었다.[32]

우리는 위의 편지에서 해배 소식을 담은 편지가 추사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8년 3개월이라는 길고도 외로운 유배 기간 동안 추사와 지인들 간에 끊임없이 이루어진 편지 왕래의 결과는 마침내 해배라는 기쁜 소식이 담긴 '편지 선물'로 돌아옴으로써 그 길고 고단한 여정의 대미를 마친다. 이들은 편지 왕래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힘든 처지에 공감하고,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것과 서로의 소식을 전해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보여준다.[33]

이번 2장에서는 추사의 제주유배시기 몇몇 글들을 치유적 관점에서 조명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사는 유배로 인한 괴로운 심적, 외적 상태를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글쓰기 expressive writing'를 통해 발설하였다. 수선화를 소재로 한 한 시에서는 수선화와 자신을 연결하는 '은유적 표현 metaphoric expressive'을 통해 절망적 상황을 희망적 심상으로 바꾸어 놓는 문학적 형상화를 이루어냈다. 추사는 제주유배시기 내내 가족, 지

32) 참조, Nathan R. Pyle, ibid, pp. 71, 73, 77-78.

33) James W. Pennebaker, John F. Evans, *Expressive Writing: Words that Heal*, WA, Idyll Arbor, 2014, pp. 124-125.

인들과 지속적인 소통 상황에 있었는데, 앞의 편지에서도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전제로 한 서로의 안부와 정보 교환, 해배로 인한 충만한 기쁨의 감정 표현 등이 내용을 이루어 '치유적 편지 therapeutic letters'로써의 기능을 수행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2장에서는 추사의 글들을 '치유적 글쓰기 therapeutic writing'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관점에서 조명하여 그의 글쓰기가 치유적 글쓰기로서의 요소, 기능, 효과를 갖추었음을 문헌들을 통해 확인하였다.

3. 치유 스토리텔링 콘텐츠 구상 방안

제주는 유배인에게 형벌로 보내졌던 원악도(遠惡島)에서 국내 최고의 관광지를 넘어 현재와 미래의 세계적인 문화유산관광지라는 파격적인 변화를 한 세기만에 이루었다. 일제 강점기와 6.25 한국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피해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있었다는 점에서 제주도 또한 예외가 아님에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1세기만에 제주처럼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룬 곳도 찾아보기 힘들어 보인다.

더욱이 최근 제주 올레 트래킹 문화는 제주 관광과 방문 목적에 또 하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34] 이제 제주 관광은 보고, 먹고, 드라이빙 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올레를 천천히 장시간 걸으며 내적 성찰과 치유 그리고 신체적 건강과 휴식을 취하는 방식이 추가되어 여행문화의 다양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제주유배문화 또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

34) 제주 올레는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의미, 가치, 효과를 인정받았다. 일본에서는 제주 올레의 이름을 그대로 수입하여 '규슈올레'를 조성하였다. 「일본에는 '규슈 올레'…"좋은 것은 서로 배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30897, 검색일자 2015년 8월 18일.

며 그것은 학문적 연구 차원에서만 아니라 제주, 유배, 관광, 치유를 연결하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방식을 추구한다.[35]

여행의 중요한 목적은 일상의 틀에 박힌 패턴에서 벗어나 몸이 쉬고, 마음이 안정되고, 사물을 즐기면서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이다. 여행이 일상의 스트레스, 삶의 험난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 쉼이 되는 목적이 있고 그러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제주유배문화를 활용한 제주 치유여행은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더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상적인 여행에서 간접적이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치유 효과만이 아니라 여행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치유효과[36]를 적극적으로 개발,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도민들은 물론이고 제주 여행객들이 자발적이고 흥겹고 유의미하게 치유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37]

아래의 각 절들은 치유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콘텐츠를 진행 내용과 방법 및 진행자 지침을 중심으로 구상한 내용이다.

---

35) 김진철, 양진건, 「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연구 - 제주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사례를 중심으로 -」, 인문콘텐츠학회, 『인문콘텐츠』 제36호, 2015, pp. 185-206.

36) 김세은, 「여행체험의 치유효과 분석: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여가관광개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 이상봉, 「여행경험과 심리치유 간의 관계」,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 박사학위논문, 2011 외 다수.

37) 현재 조성되어 운영 중인 '제주유배길(집념의 길)'에서 본 연구의 치유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유배길 프로그램 제반 상황 등은 물론이고 이를 위한 시간, 공간, 대상 등을 짜임새 있게 고려한 기획-운영 과정이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연구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3.1 감정을 표현하는 치유적 글쓰기

(1) 개요: 앞서 제주유배길 참가자들은 추사가 쓴 한시와 서한에서 그가 담계와 운대처럼 유배 죄인이 된 것과 유배생활의 고충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표현한 한시와 서한을 확인하였다.[38] 추사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한 글들을 감정적 어조로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은 치유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에서 표현적 글쓰기 시간을 갖는다.

참가자 개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이나 충격을 주었던 사건들로 인한 심리적 외상, 무의식에서 의식 세계로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 격동 등을 곰곰이 생각하여 주제를 정해 그 상황 전반과 감정을 표현하는 글쓰기를 한다.

(2) 글 작성을 위한 참고 사항: 주제 선정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해당 주제 및 사건이 참가자의 어린 시절과 부모님,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쓰게 될 수도 있다. 또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 외에 사회생활에서 만난 사람들과 관련하여 글을 쓸 수도 있다. 즉,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두려워하거나 가장 분노하게 만든 사람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감정적 격변이 참가자의 현재 생활, 친구, 가족, 일 그리고 인생에서 참가자의 현재 위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참가자가 과거에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는지, 미래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현재는 누구인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39] 등에 관한 사항들과 연계될 수 있다. 물론 사고로 인한 물리적 고통, 몸의 질병, 사회문제로 인한 충격 등에 관한 것들도 주제가 될 수 있다.

(3) 제목(사건 또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4) '감정을 표현하는 치유적 글쓰기' 작성하기:

---

38) 본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본인들을 위한 치유 스토리텔링을 하기 이전에 본 논문 2장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학습시간을 갖게 된다.

39) James W. Pennebaker 지음, 『앞의 책』, p. 60.

(5) 기술 방법 및 프로그램 진행 방식:[40]

① 사건 또는 인물과 관련한 가장 깊은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② 지극히 개인적이고 중요한 사건을 주제로 삼도록 지도한다.
③ 한 페이지 이상 세 페이지 이하로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④ '감정을 표현하는 치유적 글쓰기'는 3~4일 동안 진행한다.
⑤ 참가자의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도록 지도한다.
⑥ 참가자가 글쓰기 중간에 매우 격한 반응을 보이거나 정신적 위기감을 호소하면 중단한다.
⑦ 단체 지도 이후에 반드시 개인별 지도를 병행한다.
⑧ 참가자는 매회 글쓰기 작성 이후, 진행자의 지도, 자가 점검, 설문지 작성 시간을 갖는다.

등등

3.2 내적 심상을 다루는 치유 목적의 은유적 글쓰기

(1) 개요: 앞서 참가자들은 추사가 수선화를 소재로 한 한시에서 그가 어떻게 수선화와 자신을 연관 지어 다루면서 현실의 비참한 자

40) 본 연구의 3장은 제주유배길 또는 제주 여행에서의 치유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콘텐츠 구상안을 개괄적으로 제시한다. 그럼으로 유배길 체험 및 각종 여행 프로그램 개발자와 진행자는 표현적 글쓰기 치료와 관련한 연구 논문 및 저서 등을 검토하여 해당 치유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의 형태와 특징에 맞게 이를 개발,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글쓰기 치료'에 관한 다수의 문헌들이 참고 될 수 있다. James W. Pennebaker 지음, 이봉희 옮김, 『글쓰기치료 *Writing to Heal*』, 서울, 학지사, 2007. ; James W. Pennebaker, John F. Evans, *Expressive Writing: Words that Heal*, WA, Idyll Arbor, 2014. ; Joshua M. Smyth, Arthur A. Stone, Adam Hurewitz, Alan Kaell(1999), "Effects of writing about stressful experiences on symptom reduction in patients with asthma or rheumatoid arthritis. A randomized trial", *JAMA(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1(14), 1999, pp. 1304-1309 외 다수.

기 모습을 은유적 상상력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로 바꾸어 한시로 완성했는지를 확인하였다. 참가자들 또한 앞서 '감정을 표현 하는 치유적 글쓰기' 시간에 정한 주제를 비롯하여 이번 은유적 글쓰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은유적 변형 즉 새롭고 대안적인 이야기로의 변형을 프로그램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 이루어낼 수 있다.

⑵ 글 작성을 위한 참고 사항: 제주유배길 걷기 코스, 제주의 한적한 밤바다, 여행지 숙소 등 참가자가 가장 편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글을 쓴다. 어떤 문제, 사건, 대상이나 대상자에 관한 마음의 상태를 '마치…와 같다.'는 문장으로 표현해본다. 과거의 문제로 남아 있는 고정된 이야기에 관점의 다양한 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제시, 희망적인 결말을 위한 방법 등을 대안적으로 제시하여 심적 변화를 시도한다.

⑶ 제목(사건 또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⑷ '내적 심상을 다루는 치유 목적의 은유적 글쓰기' 작성하기:

⑸ 기술 방법 및 프로그램 진행 방식:[41]

① 문학적 글쓰기에 비교적 능숙하거나 참여를 선호하는 참가자들의 지원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② 프로그램 진행자는 기존의 '치료 목적 은유적 글쓰기' 사례에서 나온 다양한 글(문학작품)들을 참가자들에게 예시 글로 교육, 제공한다.

③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진행자의 지도에 따라 시, 소설, 희곡, 수필, 자서전 장르 등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

41) '3.2 내적 심상을 다루는 치유 목적의 은유적 글쓰기' 과정을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3.1 감정을 표현하는 치유적 글쓰기' 과정보다도 교육방법, 교육교재, 대상선정, 개별지도, 진행전문성(시 치료, 은유 치료, 스토리텔링 치료 관련 교육과 창작) 측면에서 한층 세심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보다 더 심화·발전한 과정으로, 유배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시, 은유, 스토리텔링 치료 방식의 중장기 치유(여행) 전문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다.

④ 단체 지도 이후에는 반드시 개인별 지도를 병행한다.
⑤ 참가자의 의향에 따라 프로그램 모임에서 글(참가자 수준의 문학작품)을 공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등등

3.3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치유적 글쓰기

(1) 개요: 앞서 제주유배길 참가자들은 추사가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낸 여러 편의 편지들을 읽어보았다. 추사가 편지 왕래를 얼마나 기뻐하고 이를 통해 인간적 유대관계를 돈독히 했는가와 그에게 편지가 유배시기를 살아가기 위한 주요한 활력소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가자들도 몇 가지 유형의 치유적 편지를 작 성할 수 있다. 그리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러저러한 마음에 한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사람, 용서하고 용서받고 싶은 사람 등 지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러한 사람들에게 쓰고 그러나 보내지 않는 편지[42], 본 프로그램에 보내서 익명인(진행자)과 주고받을 편지 등이 있다.

(2) 글 작성을 위한 참고 사항: 편지 내용 구성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관련된 사건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 감정, 견해, 안부, 사건, 편지 의도, 현재 심적·외적 상황, 지난 과거, 미래 계획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제목(사건 또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4)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치유적 글쓰기' 작성하기:

---

42) "편지쓰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프로그램 참가자의 정신건강에 있다.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안 보내는 것이 좋다. 우선 편지를 쓰고 며칠 동안 기다린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읽어보고 곰곰이 생각하여 만약 편지가 수신자와 둘의 관계에 이익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면 보내지 않는다." James W. Pennebaker, John F. Evans, Ibid, p. 123.

⑷ 기술 방법 및 프로그램 진행 방식:

①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 스스로 고려하고 본 프로그램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편지쓰기가 단 회 보내기 또는 주고받기로 그 충분한 효과를 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와 여러 차례 주고 받아야 할 성질의 상황인가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등등

이번 3장에서는 앞서 2장에서 제시한 추사 글에 대한 치유적 관점을 제주유배길과 제주 여행에서 실제로 활용하기 위한 치유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제시하였다. 각 절은 2장 각 절의 순서와 상응하게 나열하였다. 이번 3장은 구상 방안 제시에 관한 내용이므로 특정한 경우만의 세부적인 사항들보다는 적용 가능한 것들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범주에서 기술하였다. 앞으로 치유 스토리텔링 실제 적용 사례가 많아지고 프로그램이 발전하여 사례 제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결론

제주유배시기 추사의 글쓰기는 유배의 아픔을 극복해내기 위한 치유적 글쓰기가 되었다. 그의 치유적 글쓰기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도구이자 그 과정이 삶의 의미를 형성하는 여정이 되어 완숙하고 오묘한 결정체들로 남았다. 추사의 글쓰기 환경에 제주유배라는 치명적인 위협과 고난이 침범했지만 그는 이에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이를 예술혼으로 승화시켜 그의 글을 유배 이전보다 더욱 빛나게 하였다.[43]

---

43) “이재(彝齋) 권돈인(權相公)이 추사(公)의 글에 관해 말하기를, 완당(阮堂:

이렇게 보면 제주와 유배는 추사에게 당시로써는 괴롭고 힘든 형벌의 땅이고 기간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그는 이것을 발전적이고 역동적인 관점으로 수용하여 인격적, 예술적, 학문적으로 완숙할 수 있는 장소와 시기로 창조하였다. 사실 태장으로 만신창이 된 추사의 심신에 제주에서 도움을 준 치료제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약, 차, 귤, 음식, 한시, 서한, 서체, 그림, 독서, 토착민 자녀 교육, 제주 토착민 등 비록 유배인이지만 추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장이 되어준 것도 제주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유배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이겨내는 추사의 모습을 이 시기에 행한 글을 치유적 관점으로 조명하여 확인하였고, 나아가 기존의 제주유배문화 연구와 실제에 치유 스토리텔링 콘텐츠 구상안을 더하여 실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주유배문화 활용 · 계승 방안을 알아보았다. 이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 내용으로, 2장에서는 추사의 글들을 '치유적 글쓰기 therapeutic writing'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그의 글쓰기가 치유적 글쓰기로서의 요소, 기능, 효과를 갖추었음을 문헌중심연구방법으로 논하였고, 3장에서는 제주유배길과 제주여행에서 실제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 중심의 치유 스토리텔링 콘텐츠 구상안을 제시하였다.

제주유배시기에 추사가 이룬 예술과 학문 업적은 우리 후대에 영존하는 문화유산으로 남았고 주로 예술, 문학, 교육 분야에서 연

김정희의 호)의 제주 유배 이후의 글은 자미(子美: 두보의 자)가 기주(夔州) 유배 이후의 시와 같고, 자후(子厚: 유종원의 자)의 유주(柳州) 이후의 문장과 같다고 하였다. 나(申錫禧: 신석희)도 역시 그의 시와 글이 같다고 말하여, 그 신령함과 깨우침을 받아들이기가 그 신출함이 옛날과 달라 그 담박함을 수용하기 어렵다. 彝齋權相公論公書曰 阮堂濟州以後書如子美夔州以後詩 子厚柳州以後文 余則曰詩亦如其書 其靈警悟入之妙 自有神出古異 澹不可收者矣." 『阮堂先生全集』, 卷首, 覃揅齋詩集序[申錫禧](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구개발 ·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에서 유배 살았던 추사의 삶을 예술, 문학, 교육, 문화, 관광, 치유 등으로 확장하고 유기적으로 통합 · 발전시켜 제주유배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 또한 이를 위한 작은 한 관점과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위로와 치유 그리고 사회적 공의가 필요한 시기에 추사로부터 본받아야 하는 삶의 자세, 행위, 업적을 교육하고 향유하는 기회가 지속되고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논문

강주진, 「僻派家門 出生의 秋史 金正喜: 秋史의 濟州 流配動機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6권, 1987.
김세은, 「여행체험의 치유효과 분석: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여가관광개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김진철, 양진건, 「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연구 –제주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학회, 『인문콘텐츠』 제36호, 2015.
김태수, 「秋史의 流配詩 硏究」, 근역한문학회, 『한문학논집』 10권, 1992.
김현권, 「추사 김정희의 묵란화」, 한국미술교육학회, 『한국미술사교육』 19호, 2005.
부영근, 「秋史 金正喜의 濟州 流配詩 考察」, 영주어문학회, 『영주어문』 11권, 2006.
안말숙, 「치유로서의 문곡 유배시 연구」,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논총』 제36집, 2014.
안외순, 「추사 김정희와 윤상도 옥사, 그리고 정치권력」,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동방학』 28집, 2013.
양순필, 「제주유배문학 서설」, 제주대학교, 『논문집』 10, 1979.
양순필, 김봉옥,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문학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32집, 1991.
양순필, 양진건, 「秋史의 濟州 敎學活動 硏究」,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

라문화』 6권, 1987.
양은숙, 「추사 김정희의 사제관계에 대한 제주교육사적 의미」, 제주대학교 교육행정 석사학위논문, 2012.
양진건, 「秋史 金正喜의 濟州流配 敎學思想 硏究」,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9권, 1992.
양진건, 「제주유배인의 독서활동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25권 1호, 2003.
양진건, 「제주유배문화의 스토리텔링 콘텐츠적 성과: 추사 김정희를 중심으로」,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포럼』 44호, 2013.
유진경, 「조선후기 유배지에서의 차치유에 관한 연구 – 茶山과 秋史를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예문화와 다도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이민용, 「인문치료의 관점에서 본 은유의 치유적 기능과 활용」, 한국카프카학회, 『카프카연구』 23집, 2010.
이상봉, 「여행경험과 심리치유 간의 관계」,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 박사학위논문, 2011.
이호순, 「추사 김정희의 서 · 서 · 화 연구 – 제주도 유배시기를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현대미술연구소, 『논문집』 7권, 2004.
임창순, 「한국 서예사에 있어서 추사의 위치」, 『한국의 미 17 – 추사 김정희』, 서울, 중앙일보사, 1985.
임춘택, 「교육과 치료로서의 문학행위에 관한 질적 연구 – 은유적 이야기 교육과 치료 모임 사례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73호, 2015.
정후수, 「추사 김정희의 제주도 유배생활」, 한성어문학회, 『한성어문학』 15권, 1996.
조규백, 「秋史 金正喜의 濟州島 流配 漢詩文에 담긴 문학세계 탐색 – 중국문인 蘇東坡와 관련하여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제32권, 2003.
현명관, 장애란, 「제주유배문화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추사 김정희 전각의 조형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한국디자인포럼』 37권, 2012.

Honoré M. France, Jan Cadieax, Edward G. Allen, "Letter Therapy: A Model for Enhancing Counseling Interven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3), 1995.
Jeffrey Berman, "The Writing Cure: How Expressive Writing Promotes

Health and Emotional Well-Being(book reviews)" *Psychoanalytic Psychology* 20(3), 2003.

Joshua M. Smyth, Arthur A. Stone, Adam Hurewitz, Alan Kaell(1999), "Effects of writing about stressful experiences on symptom reduction in patients with asthma or rheumatoid arthritis. A randomized trial", *JAMA(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1 (14), 1999.

Karina Davidson, Amy R. Schwartz, David Sheffield, Ronald s. McCord, Stephen J. Lepore, and William Gerin, "Expressive Writing and Blood Pressure", in: Stephen J. Lepore, Joshua M. Smyth, *The Writing Cure -How Expressive Writing Promotes Health and Emotional Well-Being*,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2.

Nancy J. Moules, "The Past and Future of Therapeutic Letters -Family Suffering and Healing Words", *Journal of Family Nursing* 15(1), 2009.

Nathan R. Pyle, "Therapeutic Letters as Relationally Responsive", *Journal of Family Nursing* 15(1), 2009.

Roger J. Booth, Keith J. Petrie, "Emotional Expression and Health Changes: Can We Identify Biological Pathways?", in: Stephen J. Lepore, Joshua M. Smyth, *The Writing Cure -How Expressive Writing Promotes Health and Emotional Well-Being,*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2.

2. 단행본

김정희 지음, 임정기 옮김, 『(고전국역총서 243) 국역 완당전집Ⅰ』,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5.

김정희 지음, 최완수 옮김, 『추사집』, 2014.

양진건 지음, 『제주 유배길에서 秋史를 만나다』, 서울, 푸른역사, 2011.

최원수 지음, 「추사실기-그 파란의 생애와 예술」, 『한국의 미 17-추사 김정희』, 서울, 중앙일보사, 1985.

Anita Timpe 지음, 문은숙 옮김, 『분노는 나의 힘 Ich bin so wütend』, 서울, 북폴리오, 2008.

George W. Burns(edit.), *Healing with Stories –Your Casebook Collection for Using Therapeutic Metaphors*, New Jersey, John Wiley & Sons, 2007.

James W. Pennebaker 지음, 이봉희 옮김, 『글쓰기치료 *Writing to Heal*』, 서울, 학지사, 2007.

James W. Pennebaker, John F. Evans, *Expressive Writing: Words that Heal*, WA, Idyll Arbor, 2014.

Richard R. Kopp, *Metaphor Therapy – Using Client Generated Metaphors in Psychotherapy,* New York, Brunner Routledge, 1995.

Stefan Hammel, *Handbuch des therapeutischen Erzählens –Geschichte und Metaphern in Psychotherapie*, Kinder– und Familientherapie, Heilkunde, Coaching und Supersivion, Stuttgart, Klett–Cotta, 2010.

3. 인터넷 자료검색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DB. http://db.itk 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일본에는 '규슈 올레' … "좋은 것은 서로 배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30897, 검색일자 2015년 8월 18일.

(**투고일**: 2015. 11.5 **심사완료일**: 2015. 12.9 **게재확정일**: 2015. 12.11)

임춘택
소속: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월영동) 경남대학교
전화번호: 055-249-6328(연구실), 010-3228-1283
전자우편: fruehling@kyungnam.ac.kr

[Abstract]

A Study on 'Therapeutic Writing' of Choosa Kim Jeong-Hee during Jeju Exile and Developing a Plan of Therapeutic Storytelling Contents

Lim, Chun-Taek

The aim of this study is mainly to treat 'therapeutic writing' of Choosa Kim Jeong Hee that was dealt with as ancillary services in precedent studies on relevant. Another purpose is to develop a plan of therapeutic storytelling contents by utilizing the former. Therefore, this study is largely divided into two chapters. In the second chapter, there is presented several things of Choosa's writings during Jeju exile and I will treat that from therapeutic writing point of view. I wrote as follows in detail. In first section is his expressive writings in a painful mental and physical states. In second section is there about his metaphoric expressive writings. He wrote several Chinese poems with narcissus material, in which he tried to transform despairing self-life to hopeful life in literary configuration way. In third section is 'therapeutic letter', in which saying hello and information exchange with his families, rejoice as a result of emancipation are. In the third chapter is there about therapeutic storytelling contents. This chapter contains three sections: expressive writing, metaphoric writing, therapeutic writing.

Key word: Choosa Kim Jeong Hee, Jeju, exile, therapeutic writing, therapeutic storytelling contents, Jeju exile culture